

이슈

2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3127호



BTS

타임, 인터넷서 영향력 큰 25인 발표

글로벌 슈퍼스타 BTS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선정

역시 ‘글로벌 스타’답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 가장 수입 많은 유명인’ 가운데 43위에 올라 화제를 모은 방탄소년단이 또 한번 세계적인 영향력을 자랑했다. 방탄소년단이 17일(한국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The 25 Most Influential People on the Internet)에 선정됐다. 2017년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벌써 3년째다.

타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영국 해리 왕자와 매건 마클 왕자비,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카디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소셜미디어(SNS) 영향력, 뉴스를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능력이 이번 선정의 평가 기준이 됐다. 이들 가운데 방탄소년단은 3년 연속,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글로벌 파워’를 자랑하게 됐다.

타임은 “한국의 슈퍼그룹 방탄소년단은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아는 그룹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수백만 명의 강력한 팬덤인 아미(ARMY)의 적극적인 온라인 콘텐츠 소비와 홍보 덕분에”이라면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소셜 50차트에서 2년 넘게 정상을 지키고 더욱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부연했다.

또 방탄소년단이 1년 안에 세 번 연속 ‘빌보드200’ 1위를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발표한 ‘팜 오브 더 숲: 페르소나’의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뮤직비디오가 공개 24시간 동안 7500만 뷰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모바일 게임 ‘BTS 월드’를 소개하며 해당 게임이 출시 하루 만에 33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매너가 암바 가는 그날까지!

할머니 하이킥 치는 그날까지!

격투기 애능의 끝판왕

이종TV

이종TV 유튜브채널 인기 폭발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한국 다이빙 간판 우하람, 3m 스프링보드 11위 ‘극적인 결선행’

마지막 시기 난도 3.9 성공 ‘도쿄올림픽 티켓’

준결선 5차시기 후 13위 탈락 위기
6차 시가서 결선 확정 짜릿한 반전
세계선수권 첫 메달 도전 동기부여
오늘 오후 8시45분 운명을 건 결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17일 19시 현재)					
GWANGJU 2019					
		금	은	동	합계
1	중국	9	2	1	12
2	러시아	4	3	0	7
3	우크라이나	1	0	2	3
3	독일	1	0	2	3
5	헝가리	1	0	0	1
5	브라질	1	0	0	1
7	프랑스	0	3	0	3
8	미국	0	2	3	5
9	이탈리아	0	2	1	3
10	멕시코	0	1	3	4
⋮					
16	대한민국	0	0	1	1

대한민국 남자 다이빙의 희망 우하람(21·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세계선수권대회 결선에 진출하며 2020도쿄올림픽 출전권까지 따냈다. 우하람은 17일 광주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선에서 1~6차시기 합계 430.65점을 받아 1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 개인전(3m 스프링보드·10m 플랫폼) 결선진출자에게 주어지는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함께 거머쥐는 기쁨을 누렸다. 준결선에 출전한 총 18명 가운데 결선 진출자는 12명이다.

예선에서 1~6차 시기 합계 457.70점을 기록, 3위를 차지하며 궤조의 스타트를 끊은 우하람은 준결선 2차시기에서 49.30점, 4차시기에서 50.75점을 받는



우하람은 한국 다이빙의 ‘희망’이다. 17일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선에서 11위로 결선에 올라 2020도쿄올림픽행 티켓을 확보했다. 사진은 예선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는 우하람. 광주 | 뉴스스

데 그치며 위기에 몰렸다. 입수시 자세가 불안정해 감점폭이 컸다. 5차시기를 마친 시점에서도 340.95점, 13위로 결선 진출 여부가 불투명했다. 다행히 마지막 6차 시기에서 난도 3.9의 연기를 완벽하게 마무리지으며 89.70점을 획득, 힘겹게 결선행 티켓을 거머쥔 수 있었다. 비틀어 뛰어 세 바퀴를 비튼 뒤 파이크 자세로 두 바퀴 반을 도는 기술이었다. 중압감을 이겨내고 준결선 6차례 연기 가

운데 최고 난이도의 기술을 성공한 결과는 달콤했다. 우하람이 세계선수권 이 종목에서 거둔 개인 최고 성적은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에서 기록한 7위다. 전 종목을 통틀어 개인전 최고 성적은 이번 대회 1m 스프링보드의 4위였다. 결선에 오르며 세계선수권 첫 메달이라는 동기부여도 그만큼 커졌다. 남자 3m 스프링보드 결선은 18일 오

후 8시45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우하람을 비롯해 준결선 1~2위를 차지한 세쓰이, 차오위안(이상 중국), 예브게니 쿠츠네초프(러시아) 등 12명이 경쟁을 벌인다. 특히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 이어 이 종목 2연패를 노리는 세쓰이는 준결선에서 522.60점을 받아 2위(469.30점)와도 53.30점의 격차를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연기를 펼쳤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인공지능 안내로봇 수리·달이 인기폭발

사람들에 다가가 대화정보 제공
함께 춤도 추고 사진 찍어주기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경기장과 선수촌에는 선수단과 관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로봇 2대가 있다. 대회 마스코트의 이름인 ‘수리’와 ‘달이’로 각각 불리는 인공지능 안내로봇들은 마스코트의 실제 모습을 모니터에서 표출하며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수리는 다이빙 종목이 진행 중인 남부대 시립국제경기장, 달이는 선수촌에

서 각각 만날 수 있다. 설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경기장 게이트 부근을 돌아다니며 관람객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정면에 사람이 보이면 멈춰선 뒤 배 부위에 위치한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대화소개는 물론 경기일정과 경기장 정보, 행사·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음성인식 기능도 탑재해 ‘오늘 날씨는 어때?’와 같은 질문에 ‘오늘 광주 날씨는 맑고 최고 온도는 31도입니다’ 등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로봇과 함께 춤을 추는 댄스 기능과 직접 사진



대회 일정과 정보 등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수리와 달이 로봇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현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수리 로봇(왼쪽)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는 관람객들. 사진제공 |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조직위원회

을 찍어주는 기능까지 갖춰 선수단과 어린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

히 사진 기능은 인기가 엄청나다. 관객이 이번 대회와 관련한 각종 배경 및 스티커를 선택해 사진을 촬영한 뒤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사진이 전달된다. 선수들을 응원하는 사진을 찍고 응원갤러리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기장 곳곳에 비치된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도 대회 정보와 일정 등을 제공하며 관람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경기장을 찾은 시민 양혜정(38) 씨는 17일 “아이들이 로봇과 춤을 추며 너무 즐거워하고 신기해했다”며 “로봇이 찍어준 특별한 사진은 이번 수영대회에서 받은 가장 신기한 선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산 기자

벌써 1000만 영화 4편 탄생…누적 관객 1억 훌쩍

극한직업·어벤져스·알라딘 이어
기생충 20일경 1000만 달성 예고

올해 1000만 영화가 무려 4편이나 탄생한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 누적 1000만 관객 돌파를 예고하면서 전무후무한 기록이 쓰일 전망이다.

1월23일 개봉한 ‘극한직업’의 1626만 관객(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동원의

로 시작한 ‘1000만 릴레이’는 4월24일 선보인 ‘어벤져스:엔드게임’(1392만 명) 이후 5월23일과 30일 공개한 ‘알라딘’과 ‘기생충’으로 이어졌다. ‘알라딘’과 ‘기생충’은 16일 현재 각각 1032만, 995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연간 두 편 이상씩 1000만 영화가 나왔지만 한 해에 4편이 쏟아지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1000만 흥수’라 할 만하다.

특히 ‘기생충’은 개봉 8주차에 접어든 17일 현재 평일 평균 1만~2만 명씩 모으

고 있다. 개봉 직전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에 따른 화제와 관심이 꾸준히 이어진 결과다.

이에 더해 뭇방의 영화가 관객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북방’으로 등극, 1000만 성공을 거둔 사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코미디 ‘극한직업’은 설 연휴 전 세대의 관객을 사로잡아 ‘명량’에 이어 역대 극장 개봉작 흥행 2위를 차지하는 반전의 역사를 썼다. 또 개봉 당일 7만2736명으로 출발한 ‘알라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차트 역주행에 성공, 뮤지컬 음악영화로는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4편의 1000만 영화에 힘입어 올해 상반

기 극장 누적 관객은 사상 처음 1억 명을 돌파했다. 16일 현재 1억2095만2883명을 기록하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관객 증가폭이 쉽게 찾아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막 연중 최대 성수기에 접어들어 극장가에서는 17일 ‘라이언 킹’을 시작으로 24일 ‘나랏말싸미’와 30일 ‘엑시트’ 등 여름 기대작이 줄줄이 개봉하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 극장체인 CJ CGV 황재현 팀장은 “하반기에도 경쟁력을 갖춘 라인업이 이어지는 만큼 올해 연간 누적 관객이 사상 처음 2억2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fi1024@donga.com